



교회를 정하는 원리

1. 교회의 중요성을 알라

1) 좋은 학교를 욕심내듯이 좋은 교회를 욕심내라.

2) 자기 집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지 말고 좋은 교회를 기준으로 자기 집을 정하여야 한다. 거리에 상관없이 좋은 교회를 찾아나가야 한다. 거리가 멀다고 명문대학교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2.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아라.

1) 부담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다.

2) 십자가의 부담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3.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라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가 자신에게 은혜되는 것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4.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1) 좋은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교회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선교와 구제이다.

2) 교인들의 헌금에 의존하여 그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에 잘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5. 교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교회를 찾아라.

1)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기 보다 집을 늘리거나 자동차를 사고 놀러다니기 좋아 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는 희망이 없다.

2)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자기 집 아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투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6.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우며 화평한 교회를 찾아라.

담임목사가 시무한 기간이 긴 교회가 화평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다.

7.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라.

1) 좋은 친구와 배필 그리고 좋은 스승과 목회자를 만나기 위하여 늘 기도하여야만 한다.

2)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하여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교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4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1월 11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나지만 너를 대신해 인생을 살아 줄 수는 없구나.

너를 교육시켜 줄 수는 있지만 배우는 일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네 곁에서 이끌어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할 수는 있지만 네가 행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너의 것이다.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너 대신 결정을 내려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좋은 옷을 사 줄 수는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사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충고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건 네 몫이다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네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할 수는 없다.

너에게 나누는 기쁨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네가 실제로 남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까지는 없다.

너에게 존경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공경을 보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너에게 너의 친구를 위한 충고를 해 줄 수는 있지만 너 대신 좋은 친구를 선택해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지만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너에게 인생의 실제적인 진실을 말할 수는 있지만 너의 이름과 명성을 대신 세워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술의 해악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술을 거절해야 할 때를 아는 건 너의 몫이다.

너에게 인생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지 말할 수는 있지만 목표를 대신 이루어 줄 수는 없다.

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해줄 수는 있지만 너의 행동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너에게 친절의 미덕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관대함을 강요할 수는 없다.

너에게 세상의 험악함과 죄에 대한 경고를 할 수는 있지만 네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의 몫이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6(이사야 40)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101 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정덕수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5:25-34(신 60)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s Choi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한 여인의 용납"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6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 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1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4일	임혜자	노은숙	최윤희, 송정섭	최재학, 김영길	정덕수, 김순자
11일	정덕수	박일영	인치혁, 김정미	김교섭, 김성국	최재학, 정희자
18일	정희자	송정섭	정덕수, 김순자	김시욱, 박일영	박일영, 임혜자
25일	지찬영	신경화	김교섭, 정희자	정덕수, 유종욱	최윤희, 송정섭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새벽기도: 6:00 | 학생, 청년부: 주일 1 pm

교 회 소 식

- 어제는 성전 재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가대의 찬양, 과일대접과 교우들의 참석에 감사하다는 Roger 신부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7기): 구원론, 성령론
*일시: 19일(월)부터 4주연속 월요일 *장소: 교회 주일학교 Room
*대상: 올해 등록 가정중 기초성경공부 마치지 않으신 성도
*기초성경공부는 갈보리교회 의무과정입니다.
- 오늘은 식사친교주일
*감사: 오늘 식사는 김종엽 권사님(신영화 집사 모친)의 할머니 손끝에서 나오는 '바로 고향의 그맛' 국수로 우리들을 대접합니다.
- 도서실 운영: <담당> 김선자 성도
*신앙에 도움이 되었던 책, 함께 나눠읽고 싶은 책, 자녀들에게 유익한 책, 신앙 Tape 들을 서로 나누는 도서실이 되기를 바라며 기증을 기다립니다.
- 등록하셔서 함께 갈보리가족 되심을 기뻐합니다.
*박태영 집사, 박찬영 집사 ☎529-5472 ☎36A Ranfurly Rd. Epsom.
*양경배 집사, 김동숙 집사, 지은, 정은, 준혁, 김혜나, 김유나(조카)
☎(09)427-8285 ☎(09)426-7034 ☎ 43 Ngahere View, Orewa
*이종길, 송정남 성도, 효선, 민우 ☎419-7340 ☎ 6 Onewa Rd. NorthCote
*박병민 집사, 이기중 집사, 형길, 상배, ☎419-6586 ☎5/41 Howard Rd. NorthCote
*이재영 집사, 김경숙 집사, 효은, 송은, 해석
☎449-1911 ☎2/233 Forrest Hill Rd. Forrest Hill
-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한 성가대원으로 섬기실 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박일영 집사(성가대장), 신경화 집사(지휘)
- 예배를 돕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OHP>: 서지혜 * <플룻>: 이효선, * <바이올린>: 이예술, 조영은
- 버저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대학입시수능시험일이면 경찰차를 공짜로 탈만큼 대접받는 기회이죠. 그동안의 수고가 좋은 결실 맺도록 기도해주세요. *박은지(박일영, 임혜자 집사)
- 교우소식: Come back Home!
*원재(이지형, 박지경 성도)의 백일을 축하합니다
*윤한나 집사, 은혜가운데 한국방문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인치혁 집사, 새직장(Computer 계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종길 성도, 자동차 Sale 담당.
*신영화 집사 모친(김종엽 권사)께서 방문.
*장선주성도(김시욱 집사): 하나님께서 주일(오늘) 새벽에 건강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 살림, 익수스 합동공연: 작년 공연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후 공연이 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다가오는 하늘나라'입니다.
*일시: 17일(토) 저녁 7:30 *장소: Auckland Christian Assembly.
26 Albany Highway, Glenfield